2022년 가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함

메시지 1

실재의 영에 의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함

성경: 엠 4:20-24, 요 16:13, 6:57

- I.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곧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지 상태가 실재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 안에 복사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곧 하나님의 경륜 안의 최고봉이 되는 것이다 — 엠 4:20-24.
- A.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지 상태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활 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 엠 4:20-21.
1. 주 예수님은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고(요 5:19), 그분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고(요 4:34, 17:4), 그분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요 14:10, 24), 모든 것을 그분 자신의 뜻에 의해 하지 않으셨고(요 5:30), 그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요 7:18). 그분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셨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않으셨다(사 42:4, 50:4-5, 53:2 상, 비교 요 4:13-14, 6:15, 막 9:7-8).
 2. 주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어떤 종류의 고난이나 박해 아래서도 그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였으며, 그분 안에서는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아무 것도(어떤 일에서도 입지나 희망이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 요 10:30, 8:29, 14:30 하, 16:32-33, 벤전 2:23.
 - a. 그분은 육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계시는 비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분은 기도하시기 위해 종종 산으로 가시거나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 마 14:23, 막 1:35, 눅 5:16, 6:12, 9:28.
 - b.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혼자 계시지 않았다. 매순간 그분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셨다 — 요 5:19, 16:32, 시 16:7-8.
- B. 주 예수님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과거에 우리를 섬기셨고, 현재에 우리를 섬기고 계시며, 장래에 우리를 섬기실 것이다 — 막 10:45, 눅 22:26-27, 막 6:45-51, 요 10:10, 6:48, 8:12, 13:4-8, 18:7-9, 눅 12:37.
- C.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삶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반복인 삶이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온전하게 됴으로써 하나님-사람들이 되어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함으로 신성한 생명을 산다 — 마 11:29 상, 17:5 하, 벤전 2:21.
- D.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신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는 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요일 4:16-17.
- E.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예수님의 생활과 완전히 같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방식이 오늘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다 — 엠 1:22-23, 2:10, 15, 4:20-24.

- F. 사복음서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생활의 본, 곧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생활의 틀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이라는 틀 안에 넣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 롬 8:28-29, 엡 4:21.
1. 그분은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이 땅에서 사실 때 하나의 본을 세우셨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통하여 그분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본에 따라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 — 고전 15:45 하, 골 3:4.
 2.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자동적으로 사복음서에 묘사된 그 틀, 모양, 본에 따라 그분을 산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형태 지어져 이 본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의 의미이다 — 마 11:29, 롬 8:29.
 3.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우리는 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운다. 이러한 실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 고전 1:30, 고후 5:17, 12:2 상, 골 1:27, 갈 2:20, 롬 8:10.
- G.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이다.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 그들의 옛 사람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함으로 새사람의 신성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다. 온전하게 된 이러한 하나님-사람들은 소제물인 교회 생활, 곧 영으로 충만되고 부활로 적셔지고 십자가로 순수하게 되는 인간 생활을 산다 — 막 8:34, 롬 6:4-6, 갈 2:20, 엡 3:16-17 상, 벧전 2:21: 레 2:1-2, 4-5, 고전 12:12, 24, 10:17.
- H. 온전하게 된 이러한 하나님-사람들은 진정한 사람들로서 그들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으로 완전히 고귀하게 된 생명에 의해 사는 이들이며, 그들의 속성은 그들의 미덕을 통해 표현된다. 단체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하게 부요해진 그분의 인성 안에서 또다시 이 땅에 사시는 것이다 — 빌 1:19-21 상, 3:10, 4:5-9, 11-13.
- II.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예수님의 영이신 실재의 영이시다.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예수님의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포함한다 — 요 16:13, 14:17, 행 16:7, 롬 8:16, 고전 6:17.**
- A. 이 실재의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실재가 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실재의 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의 실재, 곧 신성한 생명에 의한 하나님-사람의 생활의 실재 안으로 안내한다 — 요 16:13-15, 빌 1:19, 비교 출 30:22-25.
 - B. 연합된 한 영으로 합해져(롬 8:16, 고전 6:17)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시는 실재의 영이신, 모든 것을 충족하는 하나님(창 17:1, 빌 1:19)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모든 어떠한 심의 비결이시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알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엡 1:17, 2:22, 3:5, 16, 4:23, 5:18, 6:18).
 - C. 실재의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총체이다. 실재의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과정의 효능이다 — 빌 1:19-21 상, 4:12, 비교 창 17:1.
 - D.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주하시는 실재의 영은 우리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를 합해진 이 영으로 돌이키고 고정시켜, 합해진 이 영에 따라 살고 행해야 한다 — 롬 8:4, 6, 9-11, 16, 고전 6:17.
 1. 그러므로 우리는 합해진 이 영 안에 살 때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살아 냄으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된다 — 엡 1:22 하-23.
 2.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즉 그 영 안에서 살고 말해야 한다. 하나는 그 영이므로 우리는 그 영 안에 있을 때 하나 안에 있는 것이다 — 갈 5:25, 롬 8:4, 고후 3:6, 8, 엡 4:3-4.

E.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살 때 그분의 본에 따라 실재의 영에 의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운다. 우리가 우리의 본이신 그분에게서 배울 때 그분의 전기(傳記)가 우리의 역사가 된다.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활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 갈 6:17-18, 롬 1:1, 9, 엡 4:20-24, 빌 2:5, 마 11:29, 벰전 2:21.

III. 요한복음 6장 57 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곧 예수님의 하나님-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곧 예수님의 하나님-사람의 생활의 복사판인 새 사람의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의 생활이 될 수 있는지 계시한다.

A. 요한복음 6장 57 절 상 반절은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라고 한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곧 예수님의 하나님-사람의 생활이다.

1. 주 예수님은 그분이 아버지를 사시도록 공급하는 요인과 아버지께 순종하시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선택하시도록 힘을 주는 요인인 가장 풍성한 은혜를 예표하는 ‘하늘에 속한 버터’와 가장 달콤한 사랑을 예표하는 ‘하늘에 속한 꿀’이신 아버지를 계속해서 누리심으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 사 7:14-15 [1901년판 미국 표준역 (ASV), 다비의 새 번역, 흠정역 참조], 출 3:8, 요 1:14-17, 5:19-20, 8:29, 16:32, 17:26, 눅 2:12, 빌 2:8.

2. 그분이 아버지께 순종하신 능력은 그분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수행하시기 위해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시도록 아버지를 가장 풍성한 은혜와 가장 달콤한 사랑으로 누리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신 것이었다 — 마 11:25-30, 14:22-23, 막 1:35, 10:45, 14:36.

B. 요한복음 6 장 57 절 하 반절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곧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의 단체적인 하나님-사람 생활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1.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지 않는다. 즉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구로 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의 공급 요소로 취하여 산다. 우리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먹어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사시도록 공급하고 힘을 주는 요인이 되실 수 있다 — 요 6:63, 렘 15:16, 롬 8:2, 12:1-2.

2.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롭게 되기 위해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비로우신 그분을 날마다 접촉하여 그분의 복사판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분을 먹어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살고 그분의 어떠한심이 될 수 있다.

C.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시어 사람이 되시게 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분을 먹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우주적으로 위대한 사람,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사는 사람이 된다 — 애 3:22-24, 55-56, 계 2:4, 7, 요 6:57, 63, 렘 15:16, 엡 6:17-18, 시 119:15.

IV. 이 단체적인 하나님-사람 생활은 우리를 단체적인 본, 곧 몸의 실재로 만들 것이다. 그러한 본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이 되어 주님을 다시 모셔올 것이다 — 마 16:18, 계 19:7-8.